

美國外交政策에 있어서 行政府와 議會間的 葛藤의 問題

具 永祿, *Politics of Dissent in U.S. Foreign Policy*

서울 : 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78, 154pp.

鄭 鎮 渭

延世大 政外科

브리커 憲法改定運動(Bricker Amendment Movement)에 關한 이 著書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美國外交政策에 있어서의 拒否의 政治學”을 다룬 卓越한 事例研究書이다. 具教授는 먼저 브리커運動의 여러 事例를 살펴본 뒤 그 事例를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에 대한 論爭과 연결시킴으로써, 美國外交政策에 있어서 行政府와 議會間的 갈등의 問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具教授는 이 著書가 “憲法에 關한 論述도 아니며 美國政府에 關한 論文도 아니다”라고 겸손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冊은 美國의 外交政策樹立過程에 있어 行政府와 議會間的 對立이 綜合的이고 抱括的인 안목으로 쓰여진 훌륭한 著作임에 틀림없다.

이 冊은 7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序論으로서 第1章은 브리커 憲法改定案과 國際聯盟規約을 둘러싼 對立樣相, 그리고 U.N.憲章 認准에 있어서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2, 3, 4章은 이 冊의 主題인 브리커 憲法改定運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브리커 憲法改定運動의 淵源, 그에 대한 여러가지 解釋과 運動의 性格, 브리커運動의 失敗理由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5章은 美國의 多元外交(multilateral diplomacy)에의 參與—특히 U.N.—에 대한 브리커側의 批判을 論述하고 있다. 6章에서는 美國의 一元外交政策(unilateral foreign policy)을 찬성하는 브리커側의 주장이 다루어져 있다. 結論인 마지막 章에서는 國際聯盟加入을 反對했던 勢力과 브리커論爭에서 다시 나타나는 諸要素들을 比較하고, “拒否勢力(dissenters)”들의 動機와 心理要因들을 考察하였다.

브리커 憲法改定案과 그에 대한 주요한 修正案을 둘러싼 論爭들은 베트남戰爭 期間中에 전개되었던 論爭들과 그 심각성에 있어 맞먹는 것으로서, 2次大戰以後 外交政策에 대한 行政府·議會間的 對立이 가장 尖銳하게 드러난 것중의 하나였다. 根本的으로 브리커 憲法改定運動은 條約과 行政協定締結에 關한 政府의 權限을 축소시키고, 나아가서는 이미 체결된 그런 條約과 行政協定の 內的效力을 制限하려는 것이었다.

브리커 憲法改定運動은 對外關係에서 大統領이 行使하는 裁量權을 憲法的으로 制限하려 했던 孤立主義者들의 오랜 鬭爭의 歷史에서 根源한다. 大統領의 條約締結權과 行政協定締結權의 濫用에 대한 의구심 및 戰時行政協定에 對한 幻滅, 그리고 大法院의 決定에 對한 不滿 때문에 브리커派는 司法府와 行政府와의 「二重의 陰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具教授

는 주장하고 있다.

著者は“브리커리즘(Brickerism)은 本質的으로 對外政策에 있어 孤立主義를 지지하는 運動”(p. 122)이라고 말한다. 브리커派는 美國이 多元外交에의 參與를 줄이고 一元外交政策에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브리커運動 期間中の 孤立主義는 주로 美國의 多元機構(multilateral organization)—특히 U.N.—에의 參與를 功擊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브리커案의 지지자들은 U.N.憲章의 國內管轄權條項 解釋에 큰 관심을 가지고 U.N.이란 美國人의 生活를 支配하려 하는 ‘國外’의 機構라고 생각하였다.

歷史的으로 美國은 國際機構에 對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孤立主義者들과 國際主義者들 間에는 美國의 外交政策方向에 관한 계속적인 對立이 있어 왔다. 때때로 野心的이고 膨脹主義的이기까지 한 對外活動에 對하여 一般國民들이 지지를 보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 期間이 지나면 相對的 孤立主義로 後退하여 國內問題에 관심을 집중하는 시기가 항상 뒤따랐다. 著者が 적절히 지적했듯이, 브리커論爭과 國際聯盟 加入反對鬭爭, 그리고 反 U.N.運動들은 “孤立主義的이고 保守民族主義的이며 反國際主義的인 傾向”을 明白히 드러낸 事件들이었다. (p. 13)

브리커 改憲運動은 실로, 2次世界大戰以後에 美國外交가 떠맡게 된 매우 광범위한 責任에 對하여 美國內의 중요한 輿論들 間에 생겨난 조바심과 不安感의 絶頂을 보여준 運動이었다. 이러한 感情은 韓國動亂의 교착상태로 인하여 강력히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準孤立主義的인 傾向은 베트남戰 期間동안 나타난 國民感情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많은 差異點에도 불구하고 브리커運動과 베트남戰 期間中에 나타난 大衆의 態度사이에는 상당한 類似性이 있는 데, 그것은 아마도 각각의 境遇에 있어 孤立主義者들의 根本的인 感情의 排出이 外交政策에 있어 行政府의 主導權을 制限하려는 運動—바꾸어 말하면, 外交政策에 있어 議會의 役割을 增大시키는 運動—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具教授는 資料를 分類하고 그것을 體系的이고 明確하게 記述하는 卓越한 作業을 遂行했다. 훌륭한 構成과 內容을 갖춘 이 著書는 美國의 對外政策研究에 큰 보탬이 될 指針書로서 歡迎할 만한 業績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